

“94년 종단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상중계 종단개혁 20주년 기념 세미나

94년 종단개혁 20주년을 맞아 의미와 성과를 짚어보는 자리를 처음으로 마련했다. 조계종 총무원 '94년 개혁불사 2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지난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종단개혁 2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개혁회의의 법제분과위원장이었던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스님이 이날 기조발제를 맡았다. 조심호계위원장을 지낸 전 교육원장 청화스님, 기획조정실장이었던 교육원장 현응스님,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94년 종단개혁이 갖는 종단적, 사회적, 역사적 의미를 고찰했다.

“사람이 변하지 않은 개혁 의미 없어”

덕숭총림 방장 설정스님

제도 아닌 승단 문제
수행 교육 바탕에 둔
인재불사가 해결 단초



승단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결국 사람이 변하지 않고는 개혁이나 정화는 의미가 없다.

국가나 단체, 종단도 마찬가지겠지만, 기관이 잘 운영되고 발전하려면 세 가지 틀이 필요하다. 첫째는 재정이 확보돼야 하고 재정이 투명화돼야 한다. 개혁 당시 시간이 쏙 있었으면 직역사찰 50개를 만들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개혁은 기득권 내려놓는 것이다. 종단이 수덕사를 특별분담금 사찰로 지정한다면 흔쾌히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 두 번째는 교육이다. 개혁회의 전까지 스님들은 사회에 무지하고 현실에 무지하고 자기 자신에 무지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정화과정에서 많은 오류를 범했다. 개혁을 했지만 지금까지 시행하지 못한 것 역시 무지의 탓이다. 사회교육과 사찰교육, 거기에 수행을 포함한 인재불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마지막 한 가지는 화합이다. 이런 바탕 위에서 불교가 사회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불교적 진단해법시는 이익에 맞추다보니 갈등의 폭은 커지고 승가의 근본인 화합의 정신이 깨져버렸다. 선거를 하면서 알게 모르게 삼보정제도 유출됐다. 종단개혁 4년 뒤인 98년 종단사태가 발생하면서 개혁은 후퇴했다. 종단과



‘94년 종단개혁’ 20주년을 맞아 지난 10일 열린 세미나에는 당시 개혁을 주도했던 스님들이 발제와 토론을 맡아 의견을 더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종단 비판과 질타 주저하지 말길”

전 교육원장 청화스님

종단개혁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은 아니다. 입법과정에는 많은 진통이 있었다. 가장 기억나는 것은 총무원장 선거법, 비구니 스님 참종권과 종회의석 안배에 대한 논의다. 입법과정에서 진보적 보수적 시각을 가진 사람으로 나뉘었다. 진보적인 스님들은 총무원장 선거 직선제를 주장



했다. 법안 5년 이상이면 투표권을 주자는 것이다. 보수적인 스님은 간접선거를 고집했고, 종단이 보다 건강하고 성숙하게



“개혁입법 50%라도 시행되면 달라져”

교육원장 현응스님

94년 종단개혁은 제도개혁에 대한 불사다. 종헌종법에 국가제도를 수용한 이유는 첫째 현재 종단의 시스템을 담아내기에 참고할 만한 사항이 율장에 많지 않고, 둘째 삼보정제를 공공재산이라고 판단, 이를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국가제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불교 철옹성 깨고 사회로 나가야”

유승무 교수

94년 종단개혁은 불교와 정권의 유착을 끊는 불교자주화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종권이 사유화되고 집권되는 것을 분산시키는 것, 통상민주화를 실현시킨 것이다. 한편으로는 종단의 정치행정개혁이라 할 수 있다.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교육체계 개편인데 교육원 별원화되



고 구성원 교육에 그 힘을 발휘한 것이 개혁의 성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제도 개혁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그 외에는 전혀 개혁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20년 뒤를 내다보면 불교는 달라져야 한다. 2030년은 60~70년에 태어나 사회민주화를 겪은 세대와 성평등 세대, 정보화 세대, 스마트 세대들이 사회의 주축이 된다. 이들은

구니 스님 45%가 참종권에 대해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20년 전부터 이런 논의가 있지만 아직 종단이 그것을 수용할 분위기가 아니어서 이뤄지지 못했다고 하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종단이 보다 건강하고 성숙하게 깨어 있으려면, 이런 공모의 장에서 날카롭고 예리한 시각과 관점으로 비판하고 질타를 해야 한다. 그랬을 때 종단을 이끄는 분들이 각성하고 경각심을 갖고 분발심을 가질 것이다.

대신 율장의 대중갈마를 기본 정신으로 수용했다. 전원참석, 대중공의에 의한 승가

를 운영하는 것은 불교 본래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건 20년이 지난 지금 94년에 입법한 종헌종법들은 20% 정도밖에 시행되지 않았다. 가장 미흡한 부분이 사찰예산회계법과 분담금제도다.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되

정치적 억압이나 성의 불평등, 정보의 불균형 등을 견디지 못한다. 반면 불교는 사회와 철옹성이 둘러져 있고, 출가자와 재가자 사이에는 도저히 오를 수 없는 해자가, 비구 비구니 사이에도 성벽이 있다. 심지어 문중 사회 지역감정이 있어 종의 결집력이 되고 있다. 다음 세대는 이런 장벽을 견디지 않을 것이다. 불조해명을 잇는 사람이 그만큼 줄어드는 걸 의미한다. 제도를 개편해야 불교가 열세에 처하지 않는다.

정리=어현경 기자 eonald@ibulgyo.com



조계종 원로회의는 지난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45차 원로회의를 개최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박헌영 아들’로 격동의 시대 살아와

■ 신임 원로의원 원경스님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밀운스님)는 지난 9일 제45차 원로회의를 열고 무진장 대종사의 입적으로 공석이 된 자리에 평택 만기사 주지 원경스님을 선출하는 등 재적의석 24석을 모두 채웠다. 이날 만장일치로 신임 원로의원 선출된 원경스님은 정은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0년 용화사에서 전강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3년 범어사에서 동산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각각 수지했다. 용화선원에서 수선안거 이래 26안거를 성만한 스님은 동국대 불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를 수료했으며, 제10대 중앙종회의원, 흥왕사, 청룡사, 신록사 주지, 경기도 지방경찰청 경승 등을 역임했다. 현재 제2교구 본사 용주사 말사 만기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특히 원경스님은 한국 근현대사 공산주의 운동의 핵심 인물로 ‘비운의 혁명가’인 박헌영(1900~1955)의 외아들로도 잘 알려져 있다. 스님은 임경석 성균관대 교수와 함께 2004년 <이정 박헌영 전집>을 발간했다. 또 2010년 박헌영의 아들로 격동의 시대를 살아온 현대사를 기록한 시집 <못다 부른 노래>를 출간하기도 했다. 원경스님은 <이정 박헌영 전

집>을 출간할 당시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어려서는 선전을 원망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하지만 어찌됐든 선전 때문에 부처님과 인연이 되어 불제자가 된 만큼 모든 것을 ‘나의 업장’으로 돌리고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이날 원로회의에는 집행부의 총무보고에서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편안 등 종단 현안에 대한 원로의원 스님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원로회의 부의장 명선스님은 “종교단체에서는 선거방식이 맞지 않다”면서 “선거를 치를 경우문중이 분열되고 종단도 혼란을 겪을 우려가 있어 추대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34대 총무원장 인준 당시 원로 스님들이 선거제도 개선을 당부해 종도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공청회를 열게 됐다”면서 “현재 4개 방안에 스님이 지적하신 추대 방안도 추가해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종회와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개진돼 중앙종회에 ‘원로회의법’ 등 관련 법 개정 과정에서 원로회의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허정철 기자 hpc@ibulgyo.com

종단유일 봉선사 염불원 하안거 정진대중 ‘모집’

종단유일의 염불수행기관인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염불원(원장 인목스님)이 오는 5월13일부터 시작되는 하안거 결계기간에 함께 정진할 대중을 모집한다. 승남 7년 이상의 조계종 스님 가운데 염불수행에 뜻있는 스님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오는 22일까지며, 면접은 28일 오후2시 봉선사 종무회의실에서 진행된다. 봉선사 홈페이지(http://www.bongsunsa.net/)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한편 봉선사 염불원은 염불의식실수와 승경, 송주 및 정토경전 연찬을 병행하는 수행기관이다. 염불원 일과는 새벽예불 및 아침경송, 광의염불에 이어 오전에는 의식강습, 오후에는 의식실참이 진행된다. 저녁예불 후에는 정토염송주, 염불선 등을 하며 매주 정토경전 특강도 마련된다. 어현경 기자

경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지정 죽

기장 장안사 대웅전 석조석가여래삼불좌상 機張 長安寺 大雄殿 石造釋迦如來三佛坐像

2008년 부산시 지정 유형문화재 제94호로 지정된 ‘기장 장안사 대웅전 석조 석가여래삼불좌상’은 17세기 중엽 경에 활약한 ‘녹원(鹿元)’이 수조각상을 맡아 1659년에 불석(佛石)으로 조성한 작품으로 문화재청이 3월 6일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 예고했으며 30일간의 지정 예고기간 중 수렴된 각계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된다. 이에 앞서 장안사 대웅전(1657년)은 2012년 8월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771호로 지정된 바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로 482 장안사 주지 정오 합참 051)727-2393



불기2558 BUDDHA'S BIRTHDAY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기장군민과 함께하는 연등문화축제

■ 일 시 : 2014년 4월 20일(일) 오후 4시 ~ 9시

■ 행 사 : 달마퍼포먼스 5시 / 축하공연 5시 30분 / 봉축법요식 6시 / 제등행진 7시 / 경품추첨 8시(자전거 10대, 가전제품 다수)

■ 장 소 : 기장중학교 운동장 및 강당

| 주최 | 기장군불교연합회 봉축위원회

| 주관 | 기장군불교연합회(회장 정오) 및 연합신도회(회장 이재순)

